

# 현대부르조아《런대경제체제론》에서 설교하는 《런대부문의 정합성론》의 반동성

신 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학계에서는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조아경제리론의 반동성에 대한 문제도 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447페이지)

오늘 남조선경제는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서 예측과 몰락의 길로 끊임없이 줄달음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사이비학자들은 그 무슨 《개량》의 방법에 의하여 《새로운 경제체제》인 《런대경제체제》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식민지예속경제인 남조선경제를 그대로 두고서도 리상사회가 실현될수 있는듯이 떠들어대고있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은 《런대경제체제》가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온갖 사회경제적모순들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주의경제의 내부적인 《조화》를 보장할수 있는듯이 묘사하면서 《런대경제체제의 정합성》에 대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들이 말하는 《정합성》이란 어떠한 경제체제가 일정한 모습으로 유지되게 하는 내부적인 《조화》를 의미한다.

그들은 《런대경제체제》가 시장과 《런대부문》의 관계에 의하여 유지되므로 《런대경제체제의 정합성》은 《시장의 정합성》과 함께 《런대부문의 정합성》의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런대부문의 정합성》에 대하여 설교하고있다. 여기서 《런대부문》이라는것은 《런대매체》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문을 의미한다.

《런대부문의 정합성》에 대한 현대부르조아경제리론은 《런대매체》를 관리하는 《런대부문》의 기능과 역할에 의하여 《런대부문의 정합성》이 보장되는데 따라 《런대체제의 정합성》이 이루어진다고 설교하는 반동적인 리론이다.

현대부르조아《런대경제체제론》에서 설교하는 《런대부문의 정합성론》의 반동성은 첫째로,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모순을 은폐하고있는데 있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은 《런대부문의 정합성》의 기초는 누구나 다 《런대매체》를 믿게 되는 《공신력》과 가치의 유지이고 《런대매체》는 화폐에 대한 일종의 가치척도이며 《불변하는 가치》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런대매체》가 《런대경제체제》에서 일반적인 화폐와 같이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마치 그것의 가치크기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것처럼 설교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런대매체》의 가치는 다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수도 없으며 《불변하는 가치》로도 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일정한 《가치매체》의 가치가 자기 운동의 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정된다. 《가치매체》는 일정한 가치를 반영하고있지만 그자체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 《가치매체》들의 가치는 일반상품의 가치처럼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지출된 사회적으로용을 객관적기초로 하여 규정되지 못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치매체》가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자본가들의 배를 더욱 비대하게 해주는 착취수단으로서만 의의가 있을뿐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가치크기는 가치법칙의 무제한한 작용밑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유가증권들의 가치가

자연발생적으로 오르내리면서 사회경제생활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런대매체》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경기상태의 자연발생적인 변화를 반영하면서 부단히 오르내릴수밖에 없다.

1997년에 남조선에 들이닥친 금융위기와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하여 파국적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남조선경제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자기의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경제체도에서 그 무슨 《가치매체》의 불변성을 논하는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불합리한 모순을 은폐시키려는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부르조아《런대경제체제론》에서 설교하는 《런대부문의 정합성론》의 반동성은 둘째로,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자연발생성, 무정부성을 미화분식하고있는데 있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은 《런대매체》의 관리는 계획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진행될수 있다고 하면서 《런대경제체제》에서 년금을 지불하는 등 화폐의 류입과 류출을 관리하는것은 자본주의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을 안정시키는것보다 용이하다고 떠벌이고있다.

그들은 《런대부문》이 마치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계획적으로 맞추어 남조선경제의 균형을 조절할수 있는 《새로운 부문》인것처럼 설교하고있다.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는 가치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조절된다.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는 가치법칙작용의 맹목성이 심화되는것으로 하여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잃고 항시적인 불균형속에서 움직인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자본주의나라들이 여러가지 재정금융정책을 통하여 경제에 간섭하고 경기를 조절하려고 하였지만 시장경제의 불균형을 해소시키지 못하였다.

《런대부문의 정합성론》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해온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정책과 본질상 같다. 몇십년에 걸쳐 자본주의나라들이 달성하지 못한 시장의 균형을 《런대부문》으로 달성한다는것자체가 어리석은 망상이다.

결국 그들이 설교하는 《런대경제체제》는 남조선의 시장에 간섭하는 《국가》대신에 《런대부문》을 바꾸어놓은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부르조아《런대경제체제론》에서 설교하는 《런대부문의 정합성론》의 반동성은 셋째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협조를 실현할수 있는듯이 주장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무마시키고있는데 있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은 우선 대중으로부터 집결된 화폐자본이 사회전체의 자본 즉 《런대자본》을 형성하며 《런대부문》이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런대경제체제》에서 《런대기업》과 《런대기관》의 실물자본은 개별적, 사적자본이 아니라 《국민적자본》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런대매체》를 구매할 때 지불한 근로자들의 자금과 자본가들이 지출한 자본이 《런대자본》을 이루며 이것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한 대중적성격을 반영하는듯이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사회전체적인 《런대자본》은 《런대매체》를 구입한 대중의 공동소유로 될수 없다.

경제생활에서의 소유권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물건을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그들의 말대로 《런대매체》를 구입한 모든 사람들이 《런대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한 공동소유자이라면 그들은 응당 그에 대한 점유와 리용, 처분을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있기때문에 그 어떤 권한도 없으며 오직 생존을 위하여 로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금과 자본가들의 자본은 서로 같은 하나의 대중적성격을 띌수 없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가지고있는 자금은 그들이 로동력의 가격으로 받은 최소한의 생활자료의 가치로서 그들은 보잘것 없는 임금의 전부를 화폐로 소유할것을 희망한다.

그렇기때문에 《련대경제체제론》자들이 임금의 일부로 《련대매체》를 구입하도록 강요하여 《련대부문》에 적립된 자금과 자본가들의 자본이 대중적성격을 반영한다고 론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협조가 실현될수 있는듯이 꾸며대며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부인하려는 반동적인 꾀변이다.

더우기 식민지예속경제인 남조선사회에서 매관자본가들과 근로인민대중이 서로 타협할수 없는 적대적대립관계에 있는 조건에서 그들이 말하는 《련대자본》이라는것은 절대로 《국민적자본》의 성격을 가질수 없다.

《련대경제체제론》자들은 또한 《련대자본》의 배분과 관련된 《련대매체》의 기능을 정치적가치매체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면서 《련대매체》는 사회전체의 주주총회와 의사결정의 표결에 참가하는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근로인민대중이 《련대매체》를 구입하기만 하면 그들자신이 자본가들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자기들의 의사대로 결의권을 행사할수 있는듯이 설교하였다.

어느 사회에서나 경제정책의 작성과 집행은 그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 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모든 정책은 철두철미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쥔 극소수의 독점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익만을 반영하여 작성집행되고있다. 더우기 미제에 의하여 모든 부문이 철저히 예속된 남조선에서 경제정책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계하게 오직 미국상전의 요구대로만 작성집행되고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련대매체》라는것은 본래의 주식의 형식을 달리한 매개체이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주식과 같은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체들의 형식이나 달리한다고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달라질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련대부문의 정합성》에 대한 꾀변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지향하여 식민지예속경제를 뒤집어엎으려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무마시켜보려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국의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책동의 산물이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류포되고있는 《련대경제체제론》을 비롯한 현대부르조아경제리론의 반동적본질을 똑바로 인식하고 주체의 사회주의경제리론의 순결성과 혁명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